



2026.9.14 (월)

통신/우주/미디어 Analyst 정지수 jisoo.jeong@meritz.co.kr
RA 박건영 geonyoung@meritz.co.kr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KOSPI	3.3	-1.0	-14.9	25.9	6.8	5.0	1.7	1.3	2.0	2.5	
통신업종	-1.7	-5.5	-8.3	4.3	11.1	10.3	0.9	0.9	4.3	4.5	
SK텔레콤	-1.9	-0.2	-11.6	22.1	15.0	14.2	1.4	1.3	3.8	3.9	
KT	-2.6	0.2	-4.7	-11.6	8.9	8.3	0.7	0.7	4.7	5.0	
LG유플러스	0.4	0.9	-5.5	-1.0	8.8	7.8	0.7	0.6	4.7	5.1	
AT&T	-0.5	6.0	10.5	-6.0	11.1	10.1	1.6	1.5	4.3	4.3	
Verizon	0.0	5.0	5.2	-1.5	10.1	9.6	1.9	1.8	5.6	5.7	
T-Mobile	-3.0	-0.6	-3.6	-16.1	16.7	13.1	3.5	3.6	2.3	2.5	
NTT	1.8	9.5	18.7	13.6	14.0	13.0	1.4	1.3	3.1	3.2	
KDDI	1.7	7.1	9.5	15.2	15.2	14.3	2.1	2.0	2.8	2.9	
Softbank	17.0	17.3	1.1	82.8	41.7	49.0	2.0	2.0	0.2	0.2	
China Mobile	-0.9	-2.8	-3.5	-1.3	11.1	10.8	1.0	1.0	6.9	7.1	
China Unicom	3.5	-7.0	-19.1	-25.2	8.1	7.7	0.4	0.4	7.8	8.4	
China Telecom	-2.9	-0.4	-7.9	-11.2	11.6	11.0	0.8	0.7	6.6	7.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9월 둘째 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5.0%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인도 정부는 위성통신 주파수 사용 대가로 매출의 5% 부과 방안을 승인, 이용기간은 5년이며 2년 연장 가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T)은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400Gbps로 4배 늘린 대전-시카고 국제백본망을 개통
국내 기관은 LGU+ 순매수, SKT, KT 순매도, 외국인인 SKT 순매수,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르면 2027년 초 5G 특화망 신규 수요 파악, 이용 세부 지침 마련 목표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보다폰, 텔레포니카는 재배분 예정 이동위성서비스 주파수 공동 확보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계획
GSMa는 6.425~7.125G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해야 한다는 성명 공개. WRC-27에 구체화 전망
AT&T는 기존 광통신과 5G에 아마존 제2도 위성망 LEO를 결합하는 계약을 체결. 기업과 공공부문 우선 서비스 예정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주간 뉴스

▶ AI시대 新유형 특화망 발굴 착수...이용자침 만든다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르면 내년 초 신유형 5G 특화망 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
- 지침 마련과 동시에 특화망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고 AI 전환 지원에 나설 전망
- 5G 특화망은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전용 5G 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연말까지 산업, 공공,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신유형 특화망 통합 파악
⇒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향과 제도적 기초 자료로 활용해 특화망별 적용 시나리오 도출 계획

▶ GSMA "6GHz 대역으로 6G 통신 준비해야"

(지디넷코리아)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6.425~7.125G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을 주장
- GSMA는 6G 통신에 700MHz 폭에 이르는 연속된 주파수가 필요하고 최소 400MHz 확보 주장
- GSMA 사무총장은 6GHz 상위 대역은 차세대 이동통신망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기회로 평가
⇒ 향후 6G 후보 주파수 윤곽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 WRC-27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
⇒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역시 해당 대역 지정에 가세. 다만 북미 지역은 7GHz 대역 지지

▶ 인도, 위성통신 주파수 쓰려면 매출 5% 내라

(지디넷코리아)

- 인도 정부는 위성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사용 대가로 매출의 5% 부과 방안을 추진, 면허료 8% 별도
- 이는 인도 통신규제청이 제안했던 4% 이상이며, 이용 기간은 5년에 2년을 추가 연장 가능
-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요금을 낮춰 주파수 사용료 1% 감면 예정. 오지 지역 유도 조치
⇒ 위성통신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주파수 사용료에 그치지 않고 연간 면허료로 8% 납부 필요
⇒ 정부는 오지보다 수익성이 높은 도시 고객 집중 가능성을 우려해 사용료 감면 등 조치 결정

▶ 스타링크 견제 나선 EU...유럽 통신4사, D2D 주파수 공동전선

(디지털데일리)

-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보다폰, 텔레포니카 등 유럽 주요 통신4사가 위성 D2D 공동 전선 구축
- 2027년 재배분 예정인 EU의 2GHz 이동위성서비스 주파수 공동 확보 위한 컨소시엄 구성 준비
- EU 집행위원회는 2GHz 대역의 1/3은 정부용 통신에, 나머지 2/3은 상업 서비스에 배정 전망
⇒ 상업용 가운데 절반은 EU 사업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EU와 비 EU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
⇒ 위성 사업은 지상국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선소시업을 구성하면 부담 분담 가능

▶ AT&T, 아마존 위성통신 결합 기업전용망 구성

(지디넷코리아)

- AT&T가 광통신과 5G에 아마존의 제2도 위성망 LEO를 결합해 커버리지와 복원력 강화 계획
- AT&T 비즈니스와 아마존 LEO는 기업, 공공부문 고객에 위성 광대역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
- 기존 광통신과 5G 위에 더해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 기업은 환경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 가능
⇒ 광통신, 5G, 위성 서비스를 하나의 청구서로 결제, 고객지원 및 위성 연결 장비도 AT&T가 제공
⇒ 양사는 기업용 서비스에 요구되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구축 진행 뒤 범위 확장 계획

▶ 4배 빨라진 국가과학기술연구망...국제백본망 400Gbps로 확대

(디지털타임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T)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 400Gbps로 4배 확장한 국제백본망을 개통
- KISTI는 KT의 해저케이블 구간을 포함해 장거리 전송을 위한 400Gbps 국제연구망 백본을 구축
- 이번 국제백본망은 단일 파장당 400Gbps급 국제회선으로, 국제 연구 네트워크 인프라 중 최고 수준
⇒ 특히 대전-시카고 구간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제백본의 핵심 축으로, 대륙별 대표 연구망 집결
⇒ 이 구간 확대를 통해 시카고에서 북미, 남미, 유럽까지 4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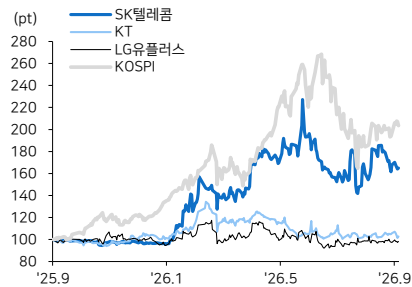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증가	시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통화)	총액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한국	SK텔레콤	90,900	14.6	13.0	13.3	1.4	1.5	1.0	1.0	4.0	4.1	5.1	5.0	9.8	9.8
	KT	52,700	9.9	20.3	20.7	1.6	1.7	1.1	1.2	4.3	4.4	3.9	3.8	8.2	8.4
	LG유플러스	14,890	4.7	11.4	11.7	0.8	0.9	0.5	0.6	2.8	2.9	2.9	2.8	8.2	8.5
미국	AT&T	26.1	178.6	129.2	131.9	27.7	29.7	16.4	17.2	48.2	50.1	6.7	6.4	13.9	14.7
	Verizon	50.6	210.3	140.9	143.3	33.2	35.4	20.8	21.5	53.5	55.3	7.0	6.8	19.0	20.0
	T-Mobile	182.3	195.6	94.4	98.7	20.4	24.4	12.0	14.7	37.4	40.5	7.6	7.0	21.9	26.9
일본	NTT	176	103.5	98.3	101.9	10.7	11.3	6.5	6.7	21.2	22.5	9.3	9.1	10.2	10.3
	KDDI	3,031	79.0	41.3	42.7	7.1	7.8	4.5	4.8	11.6	12.6	8.9	8.5	14.0	14.3
	Softbank	6,540	243.0	55.0	58.9	29.7	14.8	20.4	7.5	38.4	20.9	10.1	19.2	24.8	4.2
중국	China Mobile	78.9	222.3	155.7	158.2	22.5	23.2	19.6	20.1	49.8	51.1	3.8	3.7	9.0	9.1
	China Unicom	5.8	22.7	58.4	59.1	2.3	2.4	2.7	2.8	14.4	14.5	1.1	1.1	4.7	4.8
	China Telecom	4.5	80.8	78.1	79.2	5.4	5.7	4.5	4.8	20.2	20.7	3.6	3.5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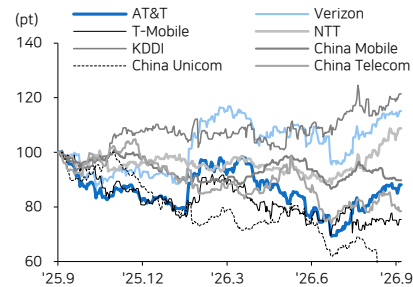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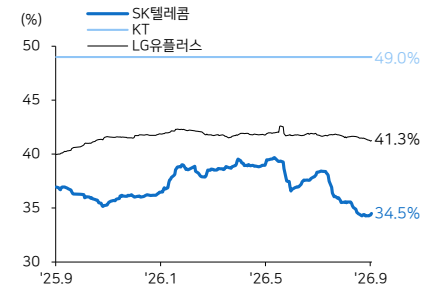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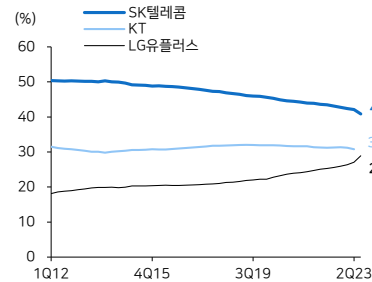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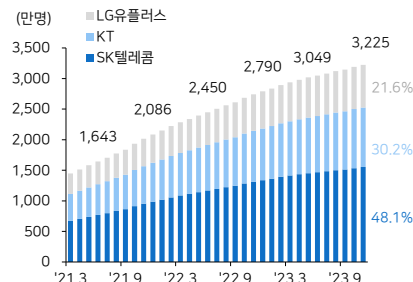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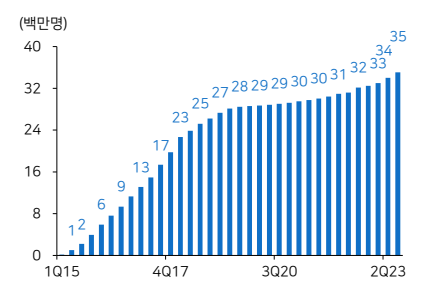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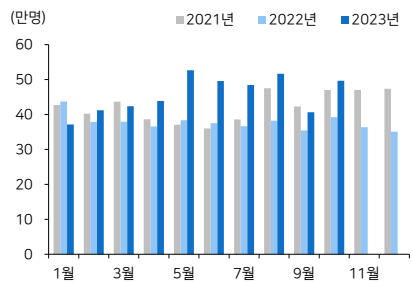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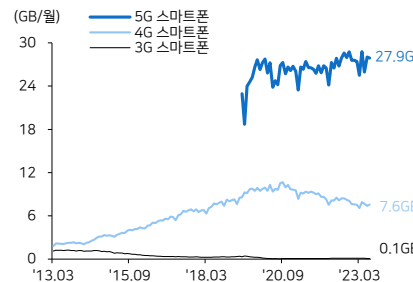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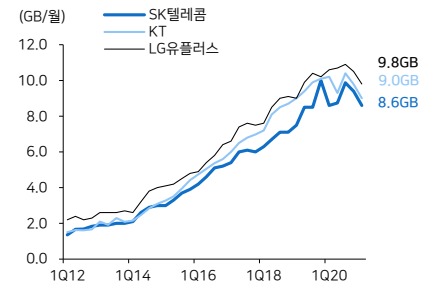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